

이마트, LTE 알뜰폰 시장 ‘조용한 돌풍’

LG유플러스와 손잡고 판매 시작...지난달 5729건 유치

마케팅·영업력 막강 대기업 계열 4사 이어 업계 5위 켜춤

알뜰폰 시장에 부는 ‘이마트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3월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의 고객유치 건수는 5729건으로 3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알뜰폰 업계 전체 5위에 올랐다. 하루 180여명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셈이다.

이 가운데 LTE 전용인 LG유플러스망 쪽 유치 건수가 54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G 폰 중심인 SK텔레콤망이 236건이었다. SK텔레콤(2만5042건)·KT IS(7613건)·미디어그룹(1만3658건)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과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2만3335건)만 이마트를 앞섰다.

대형할인매장 라이벌이면서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홈플러스가 LG유플러스망에서 89건, KT망에서 179건 등 268건의 미미한 고객 유치 실적을 기록한 것과도 비교된다. 2013년 10월 알뜰폰 사업 개시 이래 작년 연말까지 4만5천여명인 누적 가입자 수도 지난해 폭발적인 성과에 힘입어 단숨에 5만명을 돌파했다.

예초 SK텔레콤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던 이마트는 그동안 3G 단말기만 취급하다 지난해부터 LG유플러스와 손잡고 LTE 단말기를 팔기 시작했다.

LTE 쪽에는 CJ헬로비전 등 경쟁사들이 곱돌을 막고 있는데 영업 첫 달이라 인지도가 떨어져 큰 빛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터라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선전을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

기다.

이통사 계열의 한 알뜰폰 회사 관계자는 “비통신사업자로서 알뜰폰 시장에서 한 달 만에 5000명 이상을 유치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마트가 지난해 판촉을 꽤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마트 알뜰폰은 전국 101곳에 산재한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에 대형할인매장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계열 사업자에 뒤지지 않는 마케팅·영업력을 보유한 점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이마트는 지난해 2년 약정 기준 월 실요금 1만9000원(음성 100분, 데이터 250MB)인 LTE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고객에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판촉행사를 벌인 바 있다.

올해 10만명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내건

이마트는 LTE 단말기 판매에 더해 반값 유심(USIM) LTE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태세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통 3사외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자 LTE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마트 실적만 봐도 이제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소비

자 선호도가 확실히 LTE로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뜰폰 시장에서 비통신사업자인 이마트가 한 달만에 500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 이통통신사 대리점 모습.

휴대전화 배터리 오래 사용하려면

“완전 방전되기 전 수시로 충전해야”

“휴대전화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다음 충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요즘 사용하는 리튬 2차전지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늘 충전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니카드’ 전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충전 상한과 방전 하한 전압 안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상한 전압은 충전기 전압회로가 안전하게 지켜줘 충전기에 계속 꽂아두면 된다. 아무리 오래 꽂아 두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한 전압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즉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하지 않도록 하고 완전히 방전하게 되면 곧바로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비결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이처럼 배터

리에 관한 속설과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는 책 ‘올바른 배터리 이용을 위한 KERI 배터리 가이드북’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늘면서 배터리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배터리에 관해 잘못 알고 있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려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배터리와 전해지기, 생활 속 배터리 공급증 톱 10,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하기,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현명한 방법 등이 담겼다.

KERI 배터리 안내책자는 전국 주요 도서관과 언론사 등에 제공되며 전기연 홈페이지(www.keri.re.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전기연은 지난해부터 올바른 배터리 이용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모를 담고 있는 앱은 무엇일까? 바로 초록색 코끼리 에버노트이다. 노트 필기에서 협업도구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는 에버노트의 부가앱을 소개한다.

스키치(skitch) / 제작 : evernote /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키치는 사진을 찍어 간단한 표식을 추가한 뒤 재빠르게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지도와 PDF, 웹페이지에도 활용가능하며 도구를 활용해 화살표, 아이콘, 주석 등을 추가할 수 있다.



Evernote Hello / 제작 : evernote / 아이폰
에버노트 헬로우는 휴대폰 카메라로 명함을 찍어 스캔하는 앱이다. 스캔된 명함과 더불어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타임라인으로 제공되어 활용이 용이하고, 에버노트에 동기화되어 분실될 위험이 적다.



Evernote Scannable / 제작 : evernote / 아이폰
스캐너블은 종이로 된 모든 것을 스캔하고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촬영된 이미지를 조정해 또렷하고 읽기 쉬운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 준다. 또한 스캔스냅이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협업이 가능하다.



DESIGN ZOOOS 제공: 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세계 태블릿 출하량 사상 첫 감소

작년 4분기 7610만대 판매 전년 동기비 3.2% 줄어

작년 4분기(10~12월) 세계 태블릿 컴퓨터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거나 정체했음을 보여 주는 시장조사기관들의 추세가 잇따라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14년 4분기 세계 태블릿 출하량이 761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는 추산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DC는 태블릿의 범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등 PC 겸용 태블릿인 ‘투 인원’ 제품을 포함해 집계했다. 2014년 전체(1~4분기) 태블릿 출하량은 2억2960만 대로 제작년 대비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3년 태블릿 시장이 2012년 대비 52.5% 성장한 것에 비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것이며, 작년 11월에 IDC가 내쫓던 2014년 태블릿 출하량 전망치(2억3570만대, 전년보다 7.2% 성장)보다 훨씬 저조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태블릿을 스마트폰만큼 자주 교체하지 않는 데다가, ‘패블릿’이라고 불리는 대화면 스마트폰이나 ‘울트라 모바일’이라고 불리는 소형 PC가 태블릿 수요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업계 1위로 시장을 선도해 온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는 28.1%를 차지한 애플이었으며, 삼성(14.5%), 레노버(4.8%), 아수스(4.0%), 아마존(4.0%)이 2~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S6’ 내달 1일 스페인서 공개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를 본격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개막 전날인 3월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S6 언팩(Unpacked·공개)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언팩 행사 초대장을 글로벌 미디어와 주요 사업자, 각종 파트너사, 개발자 등에게 발송한 상태다.

초대장에는 검은색 바탕에 은색 글자로 ‘WHAT’S NEXT’(다음은 무엇?)라는 문구를 새겨놓아 갤럭시S6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했다. 문구 위에는 갤럭시S6의 외형을 짐작케 하는 실루엣도 선보였다. 검은색 바탕 화면에 메탈 느낌이 드는 은색 직선이 S자 곡선형태로 꺾인 점으로 미뤄, 갤럭시S

6의 테두리가 메탈로 제작됐고 옛지(모서리) 화면이 적용된 갤럭시S6의 자매 모델도 출시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언팩 행사를 유튜브(http://www.youtube.com/Samsung-Mobile)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갤럭시S6 언팩 행사에 이어 MWC에 차려질 삼성 전시관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0년과 2013년 MWC에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열린 가전전시회 CES 참석을 거르고 MWC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번에 내놓는 갤럭시S6가 갖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 안리는 안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할인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맛소브렌드도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은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